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 가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로 그 긍휼과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3월 21일 (토) 제 1771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종교적 의무 아닌 “은혜” 로 재난상황에서 승리! CT, 마틴 루터 ‘죽음의 역병’ 편지 통해 크리스천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 도시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다! 어쩌면 바이러스 확산보다 더 무서운 현실 즉 일상생활의 마비가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은 패닉 소비(panic buying)라고 하는 사재기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식료품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

지만 일본이나 홍콩,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화장지 사재기가 한창이다. 마트마다 화장지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 화장지를 두고 마트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이 개입하는 등의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나가야 할까?



한 대형마켓에서 사람들이 휴지를 사고 있다.

지난 14일, AP통신과 CNN방송 등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백 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각종 여가 시설마저 줄줄이 폐쇄되면서 주말을 즐기던 미국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날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됐다"고 전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등 유명 테마파크와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미국 프로농구(NBA)와 골프, 축구 경기도 중단됐다.

주말 예배를 취소하는 곳도 속출했다. 뉴욕의 가톨릭 대교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예

국가비상사태 첫 주말, 예배중단, 휴교령, 사재기...

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머시 돌런 대주교는 "모든 환자자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휴교령 선언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전날까지 버지니아 등 16개 주(州)가 휴교령을 발동한 데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다음 주부터 최소 2주간 휴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미국 교육전문매체 에듀케이셔널위크에 따르면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학생은 모두 2천600만명에 달한다.

AP통신은 "커지는 두려움

속에서 미국인들은 학교 폐쇄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휴교령이 확산하자 학부모들은 대체 보육 시설과 돌보미를 찾느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오리건 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AP통신에 "오늘 상황은 어제와 완전히 다르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빚어졌다. 비상사태 선언 이후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전날 오후 코스트코 등 대형매장과 상점으로 달려갔고, 물과 휴지는 동이 나며 매장

곳곳에는 텅 빈 진열대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한 주민은 CNN에 "식료품점에 사람이 몰리면서 계산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다"며 "직원들은 주말에도 영업한다는 안내 방송을 하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닉 소비는 보통 재난 상황에서 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이 높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 발생한다.

(14면으로 계속)



모임중단조치, 예배금지로 연결 않도록... 리더십저널,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한 온라인예배 가이드라인 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이달 30일까지 25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은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워싱턴 주에서부터 뉴욕 주까지 미 전역이 불안과 위협에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주일에 평소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상 그동안 교회들은 여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일예배를 폐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이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대다수 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미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Watch Our Message Online With People in HD).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주일예배를 중계하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평소처럼 설교 영상 하나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성도들은 평소처럼 예배하지 못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고 참고해야 한다.

(1)교회와 가정에서 준비할 사항

성도들이 평소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냥 설교 영상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주일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중계를 하고 그 영상을 보며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개혁의 땀방울- 조진모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 퍼 스 | 온라인
www.wmi.edu | (213) 669-0009 | 66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암, 성경대리,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cj@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국제 항공대학(원)
Pilot Certificate Program
항공 전문가에 도전하라!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항공경영학 학사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Aviation Management & Engineer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Doctor of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사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미국의 타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I-20, J-1 Visa)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2-16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관과정 취득 후에는 교관으로 비행시간을 쌓을 수 있음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발행인 칼럼

십자가는 비극?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누가 앓아갔는가? 교회의 예배, 시민의 생업, 거리의 생기를 다 빼앗겼다. 잿빛 같은 암울함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아무데도 없다. 절망의 노래가 가슴에서 번져 입술을 떼우고 쏟아진다. 어느 덧 봄은 왔건만 저 들녘에 봄은 보이지 않는다. 시인 이상화처럼 이렇게 절규하고 싶다.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이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닿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다오.....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예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며칠 전에 여기저기서 봄꽃들을 보았다. 한 겨우내 다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푸르른 생명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왜 이리 봄이 늦냐고 낙심하지 말자. 봄은 없었던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자. 둘러보라. 이미 산에 들에 봄은 왔다. 말아보라. 봄내음 가득하다. 희망을 노래하기에 너무 이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 같다. 왜 그런지 아는가? 십자가의 역설(逆說)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역전(逆轉) 때문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예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는 비극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극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눈물은 죽음과 함께 승리 속에 삼키 옵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비극의 해결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삶 속으로 옮겨져 극복되어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삶을 좌우하는 충동과 우연의 혼돈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삶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민의 눈물을 갖습니다...”

십자가는 그 비극적 모양과는 달리 비극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십자가는 비극을 넘어 비극의 해결이다. 십자가는 비극의 해결을 넘어 죽음에의 승리이다. 십자가는 죽음에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과의 화해이다. 십자가가 넘어서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십자가가 이르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다.

봄날의 푸른 잎은 저절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다. 봄날의 푸른 잎 사이로 나비들이 훨훨 나는 것은 푸른 잎, 자신의 숨 쉴 곳이 아니다. 그 푸른 잎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 뿌리다. 뿌리가 있어 나무는 솟고 풀과 꽃은 흐드러지게 핀다. 뿌리의 처연한 희생이 없이 봄의 그림이나 봄의 노래는 어렵도 없다. 꽃, 풀, 나무는 그리고 그 사이를 노니는 나비와 발은 뿌리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멈춘 비극을 왜 또 다시 들추어내는가?

나무에게 든든한 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 든든한 십자가가 있다. 지금의 상황이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한 빼앗긴 것은 하나도 없다. 십자가의 역설은 드러났고, 십자가의 역전은 이미 이루어졌다. 희망을 노래할 준비가 다 되었는가? 같이 불러보라. “배를 저어가는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코로나19, 아시아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BBC, 유엔여성기구 특보의 '아시아 여성들 삶 뒤흔드는 5가지 영역' 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보건 분야의 분투가 한창이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만든 사회적 변화도 간과해선 안 된다. 코로나19는 아시아 여성들의 삶에 특히 가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여성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인도주의및재난위험 특보는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BBC는 코로나19 창궐이 아시아 여성들을 괴롭히는 다섯 가지 측면을 짚어봤다 (Corona19 is shaking the lives of Asian women).

1. 휴교

“아이들과 함께 3주 넘게 집에 있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기자인 성소영 씨는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새 학기 시작을 2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아이들은 3월 23일 까지 학교를 가지 않게 됐다.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2억5300만명 이상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치는 어머니가 더 많은 육아 부담을 짚어준 동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다. 성씨는 “술집에 집에서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사무실에 나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 수입원인 남편이 휴가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성씨의 11살 난 딸과 5살 난

부모들을 위해 탁아소와 방과후 교실은 운영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 때문에 휴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상공인 나쓰코 후지마키 다케우치는 “휴교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워킹맘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고 말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도움을 청했다며 걱정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일찍이 그 친척 여성이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경찰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동생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그 친척 여성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죠.”

장은 “격려조치가 있기 전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상담이 3배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전염병을 핑계 삼아 가정폭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여성기구는 기존 여성을 지원하던 자원들이 코로나19 발병 억제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홀츠버그 특보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이나 성폭력 지원 등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의 자원도 코로나19에 동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3. 일선에 선 의료인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보건 사회분야 노동자 가운데 70%가 여성이다.

중국 언론은 코로나19 사태 최전방에서 일하는 여간호사들의 성차 혹은 전사로서의 면모를 극찬해왔다. 그렇다면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

간수성 출신 여성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발병을 막고자 집단으로 삭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였다. 최근 유산을 겪고도



많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하고 있다.

휴교조치로 자녀돌보기는 엄마 몫...가정폭력 피신못해 고용계약 없는 이주노동자 등...장기적 경제 여파 타격

아들은 게임과 영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상황이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직장 내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 155개국 가운데 127위를 차지했다.

성씨는 휴교조치로 육아를 하느라 출근을 못하는 여사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말은 안 해도 워킹맘들이 경쟁심이 부족하다면서 짐처럼 취급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아요. 아이만 없어도 출근은 문제가 아닐 텐데 말이죠.”

일본정부는 휴교 조치로 육아를 하느라 유급휴가를 낸 직원들에 대해 하루 최고 80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했다.

“제 사업도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큰 기업이 경제적 피해를 본다면 받는 지원 같은 건 저희한테 없죠.”

2. 가정폭력

중국 인권운동가들은 중국인 수백만 명이 실내에 머물면서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활동가 귀 정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으로 이주했다. 그는 격리된 이 도시에서 사는 젊은이들에게 부모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에 관한 문의들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화를 건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 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허난성의 활동가 샬리 오리는 BBC에 먼 친척이 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소개되는 것처럼 일부 여성들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다.

#AntiDomesticViolence-DuringEpidemic(역병중가정폭력반대) #疫期反家暴(역기반가폭)과 같은 해시태그 운동도 한창이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 이 해시태그는 무려 3000만 이상 사용됐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여성인권단체 웨이핑의 평 위안 국

다시 업무에 복귀한 임신 9개월차 의료인 이야기도 선전에 이용돼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지난달 BBC는 병원 직원들이 10시간 교대근무 중에 음식을 먹거나 쉬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털어놓은 한 간호사를 인터뷰했다.

그의 이름은 장진징. 그에 따르면 모든 병원 직원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바로 여성의 생리에 필요한 지원이 전무했던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986-4400 (대표)
Fax (718) 9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 4) 학부 및 신대원(M.DIV) 졸업 증명서
-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 6) 최근(6개월 이내) 결혼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 FAX: 832-321-5035

참고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4월 6일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드립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수정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종교적 의무 아닌 “은혜” 로 재난상황에서 승리!

(1면에서 계속)

이를 위해서 유튜브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카메라 등으로 중계하도록 미리 테스트해놓아야 한다.

영상예배를 중계하게 될 때, 영상보다 음성이 더 중요하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문제가 크다. 따라서 중계할 때 유선이나 무선 핀마이크를 이용해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상중계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교회의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영상중계 시 기존에 하던 순서에서 온라인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미리 구상을 해야 한다. 찬양과 헌금, 기도 등의 순서는 미리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정한 장소에 나오게 해 순서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게 되면 시간의 제약이 있고, 제한된 환경의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온라인 예배 시에는 충분히 미디어를 통해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설교도 영상을 곁들여서 준비할 수 있고, PPT도 활용

하는 등 더 다양하게 변할 시도해볼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정한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TV화면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컴퓨

실시간 중계 시스템 준비 미리 점검해야 “온라인예배매뉴얼” 제작 공유 바람직



터 화면이 TV에 나타날 수 있도록 케이블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2)가정예배 형태로 드리는 주일예배

실시간 중계가 불가능한 교회일 경우, 가족이 다함께 주일예배를 구성해야 한다면 미리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정한 장소에 나오게 해 순서를 맡게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구성할 수도 있다.

배 형태로 준비해서 하는 것이다.

찬양: 시간의 제약 때문에 찬양도 1-2곡만 했다면, 가정에서 하는 예배에서는 찬송가와 복음성가에서 여러 곡을 선별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도: 대표기도 시간도 직분자가 나와서 사회와 교

회 중심으로 기도해왔다면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기도제목을 내놓고 다 같이 기도하거나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본다.

특송: 찬양시간은 가족 모두가 함께 특송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해서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설교: 설교 시간은 설교

문을 주어 읽게 하기보다는 성경말씀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이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쉬운성경이나 메시지성경 등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다. 요즘엔 드라마 바이블 등 성경 낭독하는 앱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성경을 읽은 후에는 다시 한번 듣는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도 좋다. 본문은 가족이 다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나 역사서 중심으로 하거나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신서 등의 말씀을 정하면 훨씬 더 역동적인 설교시간이 될 것이다.

축도: 축도시간도 목회자가 없으므로 가족들 한명 한명이 돌아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며 마치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경우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예배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 계속된다면 좀 더 온전한 예배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



김인환 목사 (전 홍신대 총장)

현재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팬데믹(pandemi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COVID 19) 확산의 급속도와 광범위한 후유증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급속한 확산이 야기하는 공포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등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질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은 나름대로 매우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각국이 소유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처하고 또 투명한 정보공개, 방대한 접촉자 추적체계구축, 대규모 검사를 위한 각종 기기와 의술의 개발과 시술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만 이 질병을 조기에 극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것 같다. 꽤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 질병의 급속한 확산이 야기하는 전 세계적 공포현상을 보면서 주전 10-11세기 경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의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에게 내린 독한 종기(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신체의 은밀한 곳의 임파선이 부여올라 발생한 종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의 재앙으로 이 역병이 블레셋의 중심도시인 아스돗에 매우 급속하게 전염되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시민이 죽어간 사건이 연상되었다. 이러한 혹독한 재앙을 블레셋 민족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탈취한 언약궤를 성결한 의식을 행하면서 벤 세메스로 돌려보냈다. 벤 세메스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자 블레셋 진영에서 매우 신기한 능력을 행한 언약궤에 대한 호기심과 미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언약궤에 대한 율법을 어기고 그 언약궤 안을 들어다보다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다. 하나님에 의해 전 세계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언약궤를 빼앗긴 자국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블레셋 민족을 향한 성숙한 행위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연합되므로 우리들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제사장들이다. 이러한 우리들은 오늘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대처일까? 대우 경북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하므로 국내외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이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슨 특별하고도 기발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 사회와 교회 및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음미하고 통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천공포감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의젓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온전하게 가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고 하였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죽음을 당한 이웃과 영연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자 표현이다. 이를 위해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각 직장의 대처 시책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을 방해하거나 정지하지 않는 한 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수수범하면서 공익과 공공질서를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기심을 억제하고 항상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코로나19, 아시아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그는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후베이성 최전방 근로자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시스터 서포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만 명의 여성 의료종사자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해당 캠페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게 화자된 뒤 여야 중국 여성개발재단이

여성 의료인들에게 생리용품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웨이보 페이지에 “2월 28일 현재 생리용 속옷 48만1377벌, 일회용 속옷 30만3939벌, 생리대 8만6400개가 기증됐다”고 밝혔다.

4. 이주 가사도우미

홍콩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만 약 40만 명. 대부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이 여성들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송금한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홍콩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근무하는 아시아 압돈 텔레스 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 이주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모든 이주 노동자가 고

용주에게 마스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자비로 마스크를 사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비싸죠. 고용주에게 마스크를 받더라도 마스크 하나로 일주일을 버틸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샤텐 수산티는 BBC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말했다. 압돈 텔레스 국장은 고용주에게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단체 차원에서 마스크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9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제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 201)346-0030 5 Br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경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진/비디오 내시경 시술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진료: 안내, 치아외과(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6.25전쟁이 진행될 때다. 그때 나는 만 네 살이었는데 벌써 철이 들었던 같다. 아주머니들이 화롯가에 모여 시국에 대한 근심어린 대화를 나눌 때 곁에서 엿듣곤 했다. 대화의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근심어린 표정을 통하여 국가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었다.

치안대에 끌려가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는 정황에서 우리 가정은 온통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매를 데리고 계셨는데 밤에는 시골집 안 방문에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담요를 쳤다.

한밤중에 깊은 잠을 자다가 꿈새가 이상하여 눈을 뜨면 어머니는 창호지로 바른 창문 중앙에 손바닥만 하게 붙여놓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밖을 주시하고 계셨다. 혹 누가 밤에 찾아올까 하고 말이다.

그럴 때면 어린나이에든도 불구하고 나도 잠이 깨어 어머니와 함께 하곤 했다. 후일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로는 아버지를 데려간 치안대가 아이들을 체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셨다.

추운 겨울인데 매일 밤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밤이 싫었다. 밝은 때

낮에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철쭉 같은 밤이 빨리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저 지난주에 밀라노에 한 주간 다녀왔다. 장로 장립식교회와 다른 교회 주일 설교를 하는 일 때문이었다. 그 주관을 지내자마자 모든 회합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마을은 롬바르디아 지방은 경찰들이 삼엄하게 통제를 하였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 볼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다양한 밀라노에서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더 있다 가라는 아들 내외의 요구를 거절하고 목요일 내려오는 길은 마치 헤겔은 이미 콜레라에 걸려 죽었는데 쇼펜하우어는 변장하는 콜레라를 피하여 베를린을 옮겨 빠져나왔다는 구절이 떠올랐다.

이미 밀라노 가까운 주유소는 통제하느라 막아버린 상태였다. 고속도로도 한산했다. 그 많은 차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다. 로마에 내려오니 아직 로마에는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동양인이 이곳저곳을 나다니는 것도 눈치 받을 일어서 가능한 집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의 뉴스를 수시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유튜브를 자주 보는 일은 전에 없는 일이다. 한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일어나면 그 잠깐 사이에 유튜브를 보게 된다. 오늘은 환자의 수가 얼마나 증가되었나? 혹은 코로나 증가에 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나 하고 말이다. 마치도 전방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후방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자처럼 말이다.

건강한 사람이 타의에 의해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이웃과 교류하여야 하고

교류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물결이 넘실대는 시장을 찾아가고 카페를 마시기 위해 바에 가고 음식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도 드나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절제하고 멈춰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막상 실행해야 하니 답답하고 창살 없는 감옥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지금 이태리 전역은 비상사국이다.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오직 약국과 슈퍼, 그리고 병원만 문을 열도록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밖에 나갔다가 걸리면 큰 벌금과 더불어 형사 처벌된다.

아름다운 계절인데 밖은 쓸쓸하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염병 코로나, 이 병이 물고 온 삶의 풍속도는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로마의 교민들 대부분은 여행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업과 그에 관계된 일에 관계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 이 부분이 울스툼되었으니 당사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싶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성경에 예언하신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재앙에 대해 상상해본다. 그 재앙(계16:1-11)은 훨씬 더 강력하고 두려운 것일 텐데 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까? 성도는 뭘니 뭘니 해도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해야겠다 싶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 싶다. 우리가 현재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만나게 될 우주적 환란을 예측할 수 있겠다 싶다. 그 두려운 날을 말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란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한다. 이런 재앙을 만날 때 성도는 모른지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싶다.

lociel088@naver.com

푸/른/초/장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빅토빌에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현상을 보며 매번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교제의 시간만 갖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사교단체가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며 어떤 정치적 혹은 정치적인 소신을 말하는 곳도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성경은 두 그룹, 허다한 무리와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가장 심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서 사람들을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은 이미 답이 들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들은 대로 헤롯왕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을 것 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구약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예언된 엘리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예레

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고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바오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너의 혈육적 지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어 이 땅에서 어떤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의 천성이나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것이 양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여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할 수 없다고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살아 있는 한 당신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와 같은 증거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시면 되는데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도 인정하지 않다가 닭 울기 전에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을 봅니다.

내 속에서부터 진정 우리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착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처음 그를 만나셨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바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나 하면 내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는 해석에 대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카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하여 교황권에 대한 것을 성경적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않습니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합니다. 외골수라고 합니다. 달콤한 얘기 세사하는 방법 같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등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가르치려고들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인정받는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그거 갖고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제 짝을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

수님조차도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대로 행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와 달리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어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복음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온전히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나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과 상관없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행동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는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마태복음 16장 13-28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해꾼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 있는 한 당신에게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할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던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며 설득하는 모습이 있는 한 당신에게는 절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로 그것에 감사해서 은혜를 감사해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자기 자신 인줄 알았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 진행 중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 삼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진정 주님 앞에서 해 나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나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보고 뭐 하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시카고 연방판사들 “크리스천 학생들의 전도활동 금할 수 없다” 판결!

매주 금요일마다 위튼대학(Wheaton College) 2학년생인 제레미 정(Jeremy Chong)에게 친구들이 뒤통을 때리고 물으면 보통 대학생들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제레미정과 그의 친구 마태 스왈트(Matthew Swart)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을 후유증으로 그동안 노방전도가 더 심하게 단속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매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 연방 판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던 제레미(Jeremy Chong)와 매튜(Matthew Swart)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시원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경 (Background)

제레미 정과 스왈트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만 되면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곤 했습니다. 각자들의 간증도 나누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자연스런 대화전도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공원 경비원들이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이 학생들의 전도 활동은 더 이상 심플(simple)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다. 이들은 전도하는 학생들을 한두 번만 저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지하고 마치 죄인 다루어지듯이 취급되어졌습니다.

전도하던 학생들은 계속 되는 저지를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지자 거기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종교 자유를 위해 싸워주는 Mauck and Baker라는 법률단체에 연락을 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다.

이들은 먼저 법률단체를 통해 공원관리 담당자들을 여러 번 만나 해결책을 도모했습니다.

스왈트는 “우린 시카고 시 당국에 몇 번씩 오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억압) 시 규정을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시카고 시가 정책을 바꾸기는 했는데, 황당하게 바꾸었

다. 공원을 11개의 가상공간(imaginary rooms)으로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새 정책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는 그 11개의 공간 중 오직 1곳만 ‘믿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한다

는 아주 ‘희안한’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시카고 시당국이 너무 기가 막히게 황당한 결정을 해결책으로 가지고 나온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퍼블릭(Public) 공간이지 룸(room)이 아니지 않은가!” 스왈트의 변호사 존 마우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승리

존 블레이크(John Blakey)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공원이 “미적 환경수준을 보호하기 원했지만 그러한 도시의 금지 제한 규정은 공원의 넓은 지역에서 합리적인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학생들이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 자료를 자유롭게 나눠주는 것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카고 시의 편협스러운 내부지침도 짓고 넘어갔습다.

그는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공원의 운영방침에 불필요한 ‘미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의 공색한 지침을 새롭게 내세워 전도하던 학생들을 힘들게 한 것이 편협스러운 것이었음을 저지한 것입니다.

제레미 정은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월리스 타워(시카고에서 가장 큰 빌딩) 한 시간 안에 무너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상관없다.” 그는 “건물에 당장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자신의 전도 사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카고 공원을 방문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레미 정과 그 친구들의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한편, 말도 안 되는 공색한 이유를 가지고 학생들의 복음 전도를 제지하려고 한 공원과 시 당국은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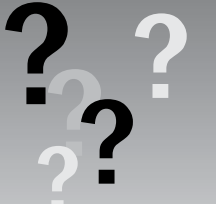
공원에 나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연방판사가 이러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현명한 판결을 내린 것에 감사하며, 계속 보수적이고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을 지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시카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카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좋은 관계가 되어서 누구든 공공장소에서 선한 목적과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제지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두려워 집회도 줄이고 성도들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까요?
- 오렌지카운티 김 목사

A: 위기는 영어로 Crisis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자에서 이 위기는 위험(Danger)과 기회(opportunity) 라는 두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이 위기는 위험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보다 온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미국도 전염병이 확산되는 추세라서 사재기를 하며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방향 제시와 대처 방안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째, 이러한 때에 우리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13-14절의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때무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 땅을 고칠지라.” 즉 가뭄이나 때무기 재앙, 전염병 재앙이 오면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기도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메시지에도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시91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반대로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시편 91편은 다윗이 인구소사의 죄를 지은 결과로 징계로 내려진 전염병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전쟁과 질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들이 전쟁에서 이 시를 많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

날개로 덮어주며 방패가 돼주신다는 시91편으로 설교

지하는 자는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전쟁의 위협)와 극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구원하시고 극한 염병 즉, 전염하여 퍼지는 무서운 질병에서 구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험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때 그는 이 시91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었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Charles Spurgeon) 목사가 목회하던 1854년 영국런던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 중에 환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했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장례식을 맡아 집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콜레라에 전염이 되어 희생자가 될 것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구두가게 위 창문에 써 붙여 있는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자기 거처를 삼았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다.” 그는 이 글을 보는 순간 큰 힘이 되었습다. 이것이 바로 시91:9-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큰 힘이 생겼고 기쁨으로 계속 환자 심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도 콜레라에 걸리지 않고 전염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다.

시91편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1)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He will cover you with His wings). 2)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He will be your shield)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천명이 네 곁에서 죽고 만 명이 앞드러진다 해도 그 재앙이 네 신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죽이는 화살이 너를 피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남이 다 죽어도 너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02: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일예배: 오후 0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05:45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k@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찬양반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무예배: 오후 8:30 Tel: (718)964-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3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ara Rd, Manhassee,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5: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jajara MEX(멕시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메그화르 빌(MEGHWAR BHIIL)

메그화르 빌족은 전통적으로 힌두카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로 간주된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됐을 때 많은 수의 카스트 힌두교인들은 파키스탄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메그화르 빌족 같은 소수의 지정카스트(불가촉천민의 공식 호칭) 힌두교인들은 파키스탄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비록 파키스탄내 소수 힌두종족일지라도 그들은 그들



의 형제 힌두인에게 멸시받는 것보다 무슬림들에게 멸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슬프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후에도 무슬림들과 힌두교도 메그화르인 사이의 오래된 적대감은 감소되지 않았다. 메그화르인은 편잡주의 남쪽 다두(Dadu)시와 나와브샤(Nawabsha)시의 북동 지역에 산다. 메그화르 빌족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족의 일부이며, 빌(Bhiil)어어의 아그롭(sub-group)에 속한다. 메그화르 빌의 언어는 구어지만 가끔씩 신문에 쓰여지기도 한다.

삶의 모습

메그화르인들은 대부분 농사꾼으로서 시골에서 살며, 고생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시절을 따라 농작물을 파는 일을 한다. 밀과 기장은 이들의 주요 식량작물이며 쌀, 목화, 옥수수도 생산한다. 농부들은 건조한 땅을 관개해야하므로 문순의 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편잡의 인더스강과 동쪽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5개 지류는 그 땅을 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그들에게 행운인 셈이다. 메그화르인의 결혼은 두 개인보다는 두 가정의 결합을 더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결혼은 사회적 지위와 카스트 제도를 고려해 중매결혼으로 이뤄진다. 시골지방에서 신혼부부들은 남편의 가족과 가까

이 살거나 같이 산다. 메그화르 여성들은 길고 빨간 패티코트 치마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쉽게 구별된다. 마을에서의 어른들은 모든 상황에서 전통적인 의상을 입었다고 강요한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이 도회지로 나가면 파키스탄 사람들의 전형적인 옷, 넓은 바지(샤와르)와 긴 상의(까미즈)로 바꾸어 다른 여성들과 잘 혼합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1992년 파키스탄니 지주가 빌(Bhiil)인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됐지만 봉건 제도의 힘은 법률위배보다도 더 강력해졌다고 한다. UN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 Commission Of United Nation)는 계속해서 시골지방에서 숨겨져 있는 하리스(Haris)와 노예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지주에게 진 부채 때문에 메그화르인들이 비빌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기도 한다. 파키스탄 지주들은 그들의 행동을 '소작인과 지주의 협력'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신앙

대부분의 메그화르인은 힌두교인들이다. 이들은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정령숭배 신앙을 반영하는 의식을 행한다. 한 예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령의식이 있다. 밀가루와 물로 반죽하여 공모양의 희생제물을 만든다. 만일 까마귀가 반죽안자를 먹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의 반죽안자에는 어떠한 동물도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필요한 것들

1900년대 초기에는 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으나 보전되고 양육되지 못했으며 현재는 메그화르 기독교인은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메그화르인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다 헌신된 기독교인 일꾼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사들에 의하면 만일 메그화르인들에게 빨리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10년 이내에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근본주의 이슬람법의 강력함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은 힌두교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미묘한 압력은 그들의 종교를 버리게 하거나 개종시킬 것이다. 성경의 일부와 예수영화가 메그화르 언어로 번역되었으나 기독교방송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로나 불황’ 과 전쟁 벌이는 세계 각국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이 불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덴마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 위기에 처한 일부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최대 75%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소 30% 이상의 근로 인력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몰린 기업이나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오는 6월 9일까지 약 7만여 명의 근로자가 이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도 전방위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일본은행은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자 회의를 예정보다 이를 빨리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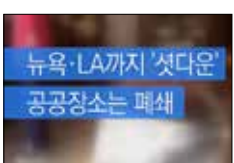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당겨 개최한 것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시급한 경제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결정도 2016년 9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야권 등의 소비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렸는데 반년여만에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일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동 지역 국가 중앙은행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은행 결제대금 6개월 유예 등을 포함한 500억 리얄(약 16조26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운송 분야 기업 등에 총 1000억 디르함(약 33조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LA 극장 사상 초유의 영업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까지 멈춰 세웠다. 사상 처음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의 극장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도시의 영화관 등 대중이 모이는 시설들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시는 17일부터 2만7000여 곳의 레스토랑, 바, 카페에 대해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영화관과 나이트클럽, 콘서트장은 영업 중단을 명했다. 학교는 최소 4월 20일까지 휴교하기로 했다.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이것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문을 닫는 곳들은 우리 도시의 심장과 영혼”이라며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전시상황에 준하는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일을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LA도 오는 31일까지 레스토랑과 바, 나이트클럽 등을 폐쇄한다.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향후 8주간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관객 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주말(13-15일) 북미 박스오피스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6-8일) 주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할리우드 영화의 개봉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블루의 질주: 디 얼티메이트’ ‘몰란’ ‘뉴 뮤턴트’ 등이 이미 개봉을 연기했고, 5월 초로 예정됐던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의 개봉도 불투명해졌다.

“美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용 백신의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다. AP통신은 15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임상시험 첫 참가자가 16일 실험용 백신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시험이 아직 공표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은 45명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들에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와 제약기업 모데나가 공동 개발한 각기 다른 주사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서부 시애틀에 있는 카이저 퍼먼텐테 워싱턴 보건연구소에서 시행되고, NIH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의 목적은 백신으로 인해 인체에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종 시험을 위한 중간 단계인데 AP에 따르면 통상 백신을 인증하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 다행히 주사제 자체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AP는 전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10여개 연구 단체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다. AP에 따르면 이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주사제의 일종이다. 특히 일부 연구자는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는 한두 달만이라도 예방효과를 보이는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이 각국 발표를 종합한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16일 오전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6만2687명이다. 이 가운데 6065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주 한인, 北 가족 상봉 길 열리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북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이 지난 9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상원에 발의된 동반 법안이 의결되면 북·미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을 찬성 391표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남북 간에 지금까지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한국 국적이 없는 미주 한인들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주 한인과 북한 가족 사이에는 소통체널이 없는 상태다.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민주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6개월에 한 번 미주 한인들과 상봉 논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처리된 적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원에도 지난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Korean War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S.3395)’이 발의됐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하와이)과 공화당의 덴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대부분이 80, 90대의 고령임을 강조하며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KAGC 측은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다”며 “지급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왜 ‘코로나19 발원지는 미국’ 이라고...

중국이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발원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어 배경이 관심을 끈다. 최근에는 “미국이 우한에 전파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논란을 일으켜 시진핑 국가주석에 쏠린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전염병 발원국이란 오명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가 중국에서는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에 절묘한 타이밍을 주고 있다.

중국 호흡기 질병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 원사가 지난달 27일 “코로나19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미국 발원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매체는 일부 일본 매체를 인용해 “독감으로 사망한 일부 미국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하며 미국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자오 대변인의 언급에 항의하는 등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자오 대변인은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않았지만, ‘미국 전파설’은 최근 인터넷에 떠돈 소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5명의 선수가 전염병에 걸려 격리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코로나19의 발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치료했던 우한 진인탄 병원은 “외국인 선수 5명이 말라리아에 걸려 치료했다”며 “결코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병원 측이 이미 부인했는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런 소문에 미국을 추가해 발원지를 미국이라고 몰고 가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데 왜 군인체육대회에 잠깐 참여한 미국이 유독 우한에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퍼뜨렸고, 왜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는지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미국 독감을 코로나19와 연관시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여 명이 사망했는데, 일부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으나 실태를 공개하라는 게 자오리젠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우한에서 퍼진 코로나19가 미국까지 확산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인이 우한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논리로는 약해 보인다. 미국에서는 매년 독감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7-2018년 겨울에는 무려 6만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독감이 유독 올해만 코로나19로 바뀌어 우한을 초토화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면 초기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전염병이 확산돼야 하는데, 왜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집단발병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는지 설명이 안 된다. 중국은 이미 야생동물을 먹는 무분별한 식습관이 전염병 확산의 근원이 된다고 보고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식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먹는 구습을 뿌리 뽑고, 인민 군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후 며칠만에 미국을 코로나19 발원지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중국 내 연구팀에 의해 제기됐는데도 묵살하고 있다.

중국 화난이공대 사오보타오 교수 등은 화난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는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박쥐 605마리 등 연구용 동물을 실험실에 보관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코로나19 ‘0번 환자’라는 소문도 돌렸다.

따라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로 미국을 몰고 늘어지는 것은 확진자 8만여 명이 사망자가 3100여명이 발생한 대형 인제(人災)를 초래한 시진핑 지도부의 책임론을 회피하고, 자국내 실험실 유출설 등 치명적인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화난이공대 사오보타오 교수 등은 화난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는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박쥐 605마리 등 연구용 동물을 실험실에 보관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코로나19 ‘0번 환자’라는 소문도 돌렸다.

따라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로 미국을 몰고 늘어지는 것은 확진자 8만여 명이 사망자가 3100여명이 발생한 대형 인제(人災)를 초래한 시진핑 지도부의 책임론을 회피하고, 자국내 실험실 유출설 등 치명적인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일부 일본 매체를 인용해 “독감으로 사망한 일부 미국 환자가 실제로 코로나19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개혁으로의 길

만일 루터나 칼빈과 같은 인물들이 50년 또는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이 가정에 대한 답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각 개인을 살펴보면, 후대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문대입에 틀림이 없다. 그들의 개혁적 열망과 신앙적 결단이 교회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교개혁으로 향하는 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였다. 특히 사상적 기초인 인문주의는 종교개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르네상스는 중세 사회가 장시간 무시하는 상황에서 상실하였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그 자체가 무엇을 대적하려는 의도가 동기가 되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전적 가르침에서 인간 중심의 정신을 발견하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운동이다.

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생겨난 것이다.

새로운 사상

중세 십자군 운동이 1096년에 시작되어 약 2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1054년에 동서 교회가 분열된 이후 서방 교회는 동방세계와 관계를 끊은 채 자신들만의 전통을 쌓아왔다.

기 이외에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행하여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명목과 달리 진행된 수치스런 사건이었다.

십자군 운동은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었을까? 동방 세계가 지니고 있던 다양한 유산들이 서유럽에 전달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군을 통해 서방 세계가 그리스를 중심한 비잔틴 문화를 만난 것이다.

이들이 처음 이슬람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이슬람은 매우 지성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그리스를 침공한 후 그리스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수용하였다.

동방으로부터 건너온 문화가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벗어나게 하였고, 나아가서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중세 사회는 인문주의자들의 눈에 중세 사회는 부패와 무지로 가득 찬 암흑기로 비추어졌다.

인문주의자들의 눈에 중세 사회는 부패와 무지로 가득 찬 암흑기로 비추어졌다.

중세 사회는 인문주의자들의 눈에 중세 사회는 부패와 무지로 가득 찬 암흑기로 비추어졌다.

중세 사회는 인문주의자들의 눈에 중세 사회는 부패와 무지로 가득 찬 암흑기로 비추어졌다.

중세 사회는 인문주의자들의 눈에 중세 사회는 부패와 무지로 가득 찬 암흑기로 비추어졌다.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페트라르카는 초대교회 교부 아거스틴의 글에 관심을 가졌던 신학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페트라르카의 인문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그가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자리에 바뀌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문주의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등장했다.

그러나 서유럽은 인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도록 교리와 예전의 틀을 구축하였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자세로 신앙인들을 대했던 것이다.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도록 교리와 예전의 틀을 구축하였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자세로 신앙인들을 대했던 것이다.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도록 교리와 예전의 틀을 구축하였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자세로 신앙인들을 대했던 것이다.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도록 교리와 예전의 틀을 구축하였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자세로 신앙인들을 대했던 것이다.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도록 교리와 예전의 틀을 구축하였다. 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자세로 신앙인들을 대했던 것이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6)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종교개혁 환경조성의 길 르네상스 인문주의... 동조자 생겨 교회부패상 문제시 할 근거 마련, 새 사상의식 수용 준비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etc.,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리더십 코멘터리 (107)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팬데믹시대의 리더십

코로나19 사태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번 코로나사태로 연일 마스크를 통해 공공의 적으로 세상의 관심을 끄는 신천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이제 대한민국의 더 이상 신천지를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독버섯처럼 퍼진 신천지가 뿌리 뽑히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공허한 질문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중국공산당이 우한에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저지른 만행과 죄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항상 누

르고 아픈 자를 안심시키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겼다. 그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병이癒아도 아픔을 기꺼이 기쁨과 평안으로 감내했다.

오늘날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돈과 명예를 사랑하며 자기과시와 세상의 타협에 열을 올리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한 시대, 한 사회가 역병으로 절망할 때 시대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살아있는 영적리더라면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때이다. 로마시대 역병 상황 중에 이교도 중 30% 정도가 죽었고, 기독교인은 10%가 죽었다. 이교도들은 시신 처리를

가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술선수범해서 시신들을 모두 치웠다. 그 일로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병으로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나눠야 한다. 에스더의 리더십처럼 사상 초유의 위기가운데 교회와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팬데믹시대의 리더십

이제 지구촌은 팬데믹시대에 돌입했다. 팬데믹(pandemic)은 최근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영어 단어다. pandemic은 지난 1월 31일 메리엄 웹스터 사전 '이주의 단어(The Word of the Week)'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단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팬데믹은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반해 에피데믹(epidemic)은 전염병 피해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는 경우다.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2014년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Ebola)가 epidemic에 해당한다.

팬데믹시대에 사람들끼리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시기와 힘담으로 서로의 마음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자화상이다. 갈릴리와 유다에서 시작된 작은 운동이 불과 3세기 만에 로마제국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고난의 터널

세상이 소란하다. 주위에 아픈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면 한번쯤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태처럼 행복했던 많은 순간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아파도 행복하고 죽음조차도 감사히 맞이해야 할 텐데 말이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언젠가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가 되어 정금으로 제련되는 기쁨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읊어 하나님을 아는데 겹겹이 덮여 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읊어 이런 고백을 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고백이리라.

사람들은 대개 어느 순간에 성장하기를 그만 두는 것 같다. 키가 어느 날 크는 것을 멈추듯이... 옛 어른들 말에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큰다고 한다. 그 말은 사람은 일생동안 커가야 하는데 살면서 만나는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만 가는 사람은 아무런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크지 않은 철부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흥수같이 많은 지식이 들어와도 웬만한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말랐고 우리 눈에 눈물도 메말랐다. 우리 가슴의 양심에 찔림도 말랐고 우리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 그러나 늘 거기까지인 우리들... 한발 더 나가 힘들고 고통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기도도 안하고 전도도 안하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힘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에 또 식상한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살아갈까?

그렇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리라. 어쩌면 편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환경에 찾아오는 고난이 두려워 별별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물리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곧 죽을 것처럼 앓던 사람이 '불이야'라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아파' '나는 못해' 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가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모로서 내 삶이 아직도 힘든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과 치료책을 적극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고분에도 나의 남은 생애도 한번 뿐이요, 우리의 목회도 한번 뿐인데 편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이보다 고난의 터널을 자처해 걸어가는 진짜 팔복의 행복을 맛보며 살고 싶다.

sondongwon@gmail.com

changsamo1020@gmail.com

맹목적 믿음 경계, 사회공동체에 윤리적 책임 몸으로 보여야 세상에 안전지대 없어...오직 하나님만 피난처, 견고한 망대

구의 죄인지보다 어떻게 치유할지에 마음을 두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동참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만 묻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리더는 자신부터 잘 보살피고, 정죄나 책임 전가의 언어를 삼가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실제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가 생길 수 있다. 위기가운데 십자가 사랑에 뿌리를 둔 영적리더들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리더십은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시대 165년경 1차 역병이 일어나 15년 동안 로마제국 인구의 25-30%가 사망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2차 역병이 발생했는데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 5000명씩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교회공동체의 대응이 놀라웠다. 이교도들은 아픈 자를 내쫓았고 죽지도 않은 사람을 생매장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슴에

뒀지만 기독교인은 시신 처리를 잘해서 실제로 역병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기독교와 교회는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누구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이웃을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때이다. 말로만 큰 소리 치는 리더들에게 사람들을 이끌며 함께 이겨 나갈 리더십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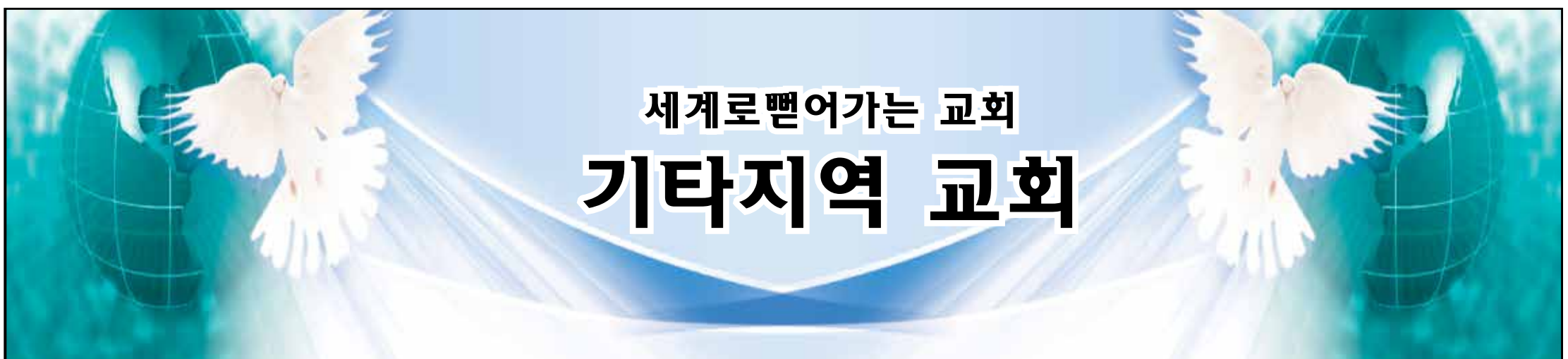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전염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의 뜻과 다르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영적리더는 맹목적 믿음을 경계하고,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 윤리적 책임을 몸으로 보여야 한다.

이럴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이러스 전염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몸을 피신하셨을까? 아마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혼란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초대교회는 전염병으로 모두

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기독교 성장의 열쇠는 초기 교회가 지켜온 복음을 위한 순교와 사랑, 돌봄과 나눔의 정신이었다. 초대교회는 역병이 돌 때 생명을 걸고 시신을 치웠고, 교회는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팬데믹시대에 영적리더들은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신앙지대인 Faith Zone에 거해야 할 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경제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 은퇴해도, 권력에서 물러나도 막강한 경제력만 갖고 있으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이 세상은 안전한가?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심을 믿기 바란다. 지금은 더 이상 안전지대인 Safe Zone을 찾지 말고 신앙지대인 Faith Zone에 거해야 할 때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목회, 위, 언, 언: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언: 오전 10:45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8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산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내 마음의 바이러스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역사에 보면 무서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사례가 많다. 1343년경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발생하여서 유럽인구의 삼분의 일인 약 1-2억 명이 죽었고, 중국은 당시 인구의 절반인 600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1918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유럽전선에 투입된 미국 군인에 의해서 유럽과 전 세계를 초도화시켰다.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된 이 독감은 유럽에서 약 1억 명을 사망시켰고, 당시 한국에서는 약 14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1976년 남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1,020

명을 사망시켰고, 그 이후에도 사스, 메르스 등의 전염병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번에는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경제와 사회전반과 개인의 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도는 이런 재난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도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 기도 중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열왕기상 8장 8절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시에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한다. "자기 마음의 재앙" 즉, 재난이 발생할 때 성도는 먼저 자신을 돌

아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재앙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재난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프랑스가 낳은 노벨 문학상 작가인 알베르트 까뮈는 "페스트"에서 흑사병의 발생 상황, 온 도시가 폐쇄되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 그 도시에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절망과 두려움의 모습, 페스트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결

국 페스트를 이겨는 과정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이 페스트를 이긴 후에 주인공 의사 뤼는 페스트는 어딘가에 숨어있고 언젠가 다시 재발할 것이다. 페스트를 막기 위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페스트는 역사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페스트, 스페인 독감, 콜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페스트는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또 다시 나타날 것이고 더 거대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재난들은 종말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서막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건의 임박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구 종말의 날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1:11). 성도는 종말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족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어느 종말의 날에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단절되고 문이 닫히는 시절이 올 것이다.

사람 사이에 왕래가 끊어지고, 모임도 폐쇄되고, 사람의 기본적인 생필품도 구입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도는 기독교의 기본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 로드리 스타크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대 전염병이 번졌다. 도시 곳곳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들이 늘려 있었다. 무서워서 아무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했고 치우지도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시체가 치워졌고 거리가 청소되어 있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냈는데, 밤이 되면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나와서 병원을 같이 돌보아주며 그 시체들을 치웠고 거리를 청소하였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로마는 기독교에 호의적이 되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국교로까지 받아들였다.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봉사 사랑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페스트의 주인공은 연합과 희생으로 페스트를 물리친 후에 페스트가 인간을 깨우기 위한 도구였다고 말한다. 까뮈는 페스트를 단순히 무서운 전염병으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죄악과 불의의 상징으로도 표현했던 것이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 시시때때로 고개를 내미는 이 불의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를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온 세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더 강력한 모습으로 재발할 것이라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기독교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주며,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의료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기를 주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되기 원한다. dik0184@yahoo.com

YouTube Live 교회에서 Live 방송하기 유승준 선교사

Covid-19로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인 한국이 심하게 아파하더니 그 불똥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마켓마다 사재기가 일어나고 중대형 교회에서는 교회모임 자체를 모두 중지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더라도 아픈 분들이나 외국 여행에서 바로 돌아오셔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 예배는 필요합니다. 동영상 예배에 고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크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이 무시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동영상 크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일수록 파일 크기가 큼니다. 480p 1시간 분량의 동영상 크기는 500Mb이고 720p(HD)의 경우는 1.2Gb, 1080p(FHD)는 2.5Gb입니다. 만일 와이파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했을 경우 이만큼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플랜을 Unlimited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데이터 소모를 두려워하여 접속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큼니다. 어른들 중 가정에 Wifi가 설치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금이 비싼 이유가 가장 큼니다.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와이파이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ow income Senior 들에게는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에서 혜택을 줍니다. SSI를 받거나 Medical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월 5-10달러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설치해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동영상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인공지능 스피커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든 현재 와이파이가 없는 어른들의 경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자가 파악을 해야 하고 또 대책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은 65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스마트폰의 종류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회사와 플랜 △통신비는 얼마, 또 누가 내고 있는지? △와이파이 가입여부 △가입하고 있는 와이파이 플랜 △SSI 혹은 메디칼 수혜여부 이상의 것을 철저히 확인해 도움을 주는 일이 실버를 돕는 일입니다. 어른들 중에는 쓸데없이 많은 돈을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신플랜의 경우도 Major가 아닌 Minor 통신회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외면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작은 돌봄이 결코 작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방송을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아직도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라이브로 방송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실제 원하는 모든 이들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와이파이가 없어서, 혹은 데이터 플랜이 무제한이 아니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정

말 속상한 일입니다. 온라인예배의 주 대상 어르신들 온라인 예배의 주된 대상이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고 또 면역력이 약하기에 이런 시기에는 교회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방법을 잘 가르쳐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조건 즉 와이파이가

있어 내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에 연결해 부담 없이 유튜브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유튜브에서 교회채널을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주소 하나를 주고 집을 찾아오려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 동네가 아니라 LA 공방에서 뉴욕 주소를 주고 집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황당하게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카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누르지만 하면 해당 동영상이나 URL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방송 주소를 성도들에게 카톡으

코로나19, 아시아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인도네시아 영사관이 무료로 마스크를 배포했지만 충분치 않아요. 한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마스크 3개를 얻을 수 있죠. 일주일에 적어도 마스크 6개가 필요한데 말이죠." 홍콩 이주노동자협회 스텝 스링가틴 회장은 말했다. 홍콩 정부의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도 했다. 정부는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 가능성을 줄이고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도 실내에 머물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가족 등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소통할 시간을 잃었다. 또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외출이 금지돼 쉬는 날 집에 머무르는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스링가틴 회장은 말했다.

"그들은 쉬는 날에도 고용인을 위해 요리하고, 고용인의 아나 부모를 돌보고 있어요. 추가 임금은 없죠. 하루 휴일을 요구한 사람들은 해고 위기에 처했어요." 영향을 받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보내온 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 다.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개인 송금액은 2019년 3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NG은행 마닐라지점 니콜라스 파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해외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송금한 금액이 GDP의 약 9%를 차지한다"면서 "필리핀 경제에서도 바이러스의 영향이 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집안에 틀어박

혀 각종 서비스업 수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이 주로 고용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자국에 돈을 부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행이 제한되는 등 이 동성에도 영향을 줘 급여 지급이나 고용 안정도 위협받고 있죠." 5. 장기적 경제 영향 경제학자들과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이 2009년 이래 가장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런던 SOAS대 크리스티나 마야그스 강사는 "전반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여행, 생산,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남녀 할 것 없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들은 접대나 소매업, 기타 서비스 산업에 고용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 둔화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것: 스마트폰 종류 △가입 통신회사와 플랜 △통신비는 얼마, 누가 내는지? △와이파이 가입여부 △가입 와이파�플랜 △SSI 혹은 메디칼 수혜여부 말 속상한 일입니다. 온라인예배의 주 대상 어르신들 온라인 예배의 주된 대상이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고 또 면역력이 약하기에 이런 시기에는 교회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방법을 잘 가르쳐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조건 즉 와이파이가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목장이던, 셀이던, 다락방이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그 그룹의 리더들과 소통하는 단체방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단체방에 라이브 방송의 주소를 올리고 리더들은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 단체방에 이를 올려 모든 사람들이 단 한번의 터치로 방송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경험이 없는 이들은 빠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소그룹 중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방송은 예배 10분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온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심이 없다. 직업을 되찾고 싶은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교협 온라인예배 강좌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미디어분과에서 주최하고, 씨존과 뉴욕기독교방송(CSBN, 대표 문석진 목사)이 후원하는 미디어 강좌가 3월 26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지 뉴욕교협 2층에서 열린다. 강의내용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실천준비'로 수강료는 없고 강의후 중식이 제공된다.

▲문의: (718)279-1414(교협) (347)538-1587(문석진 목사)

뉴욕목사회 부활절연합찬양제 취소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계획했던 부활절 연합찬양제(4월 19일 예정)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준비기도회도 자동 취소됐다.

▲문의: (718)762-3247, (347)850-5188

뉴욕청소년센터 행사 연기 및 취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송운섭 장로)가 뉴욕가정상담소와 공동 주최하는 제 4회 목회자 컨퍼런스(4월 27일)가 잠정적으로 연기됐고, 5월 16일 청소년센터 주관으로 퀸즈 칼리지 실내 농구장에서 예정됐던 농구대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aycny.us)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718)279-1313

뉴욕일원 한인교회들 온라인예배 전환

3월 12일 오후 5시 뉴욕주지사의 집회 금지령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뉴욕시 비상사태를 선포에 따라 뉴욕일원의 대형 교회들이 15일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했다.

프라미스교회는 3월 15일 주일부터 4월 12일 주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모든 공예배(주일, 금요, 새벽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프라미스교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회 건물 출입을 삼가하며 댄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예배에는 교직원, 시무장로, 순서자, 영상팀 등만 참가한다.

UMC뉴욕연회 토마스 빅터톤 감독이 13일 연회내 교회들에게 "뉴욕연회에 속한 교회들은 2주간 공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행정명령 성격의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후러심제일교회(김정호 목사),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 뉴욕갈리교회(강원근 목사), 만백성교회(이종범 목사) 등 뉴욕의 연합갈리교회들은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웨체스터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한인동산장로교회(이풍삼 목사)는 3월 15일 주일예배를 취소했으며 가정예배를 권하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진행했다.

한편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는 3월 16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한편 현재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17일부터 영상으로 실시간 온라인예배로 대체했다. 예배는 교역자와 장로들만 참석해 기존 예배형식으로 진행한다.

퀸즈장로교회는 일단 온라인 새벽예배를 이번 주만 실행하기로 공지했다.

(유원정 기자)



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39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회장 이학용 목사, 부회장 오조나단 목사

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39차 정기총회

하나님의성회(AG)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 제 39차 정기총회가 "주께 부르짖으라"라는 주제로 3월 10일 오전 10시30분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이성달 목사 인도로 통성기도, 설교 허연행 목사("약속", 행7:14-16), 헌금기도 및 축도 김명옥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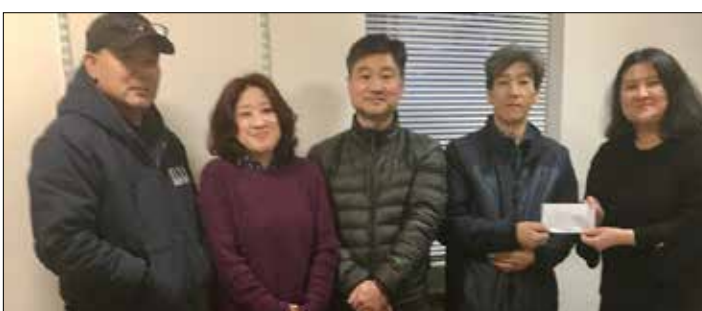
2부 회의는 지방회 회장 이성달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회

계보고, 내지선교보고, 1년 지방회 사무보고, 새임원 선출, 회장단 자격보고 이광희 목사, 신규 회장단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새 임원은 △회장 이학용 목사 △부회장 오조나단 목사 △총무 유상룡 목사.

이외 중보기도(한국총회와 지방회, 미국과 조국을 위해), 광고 오조나단 목사, 폐회기도 임계주 목사 순서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라이온스 총회가 뉴욕 가정상담소에 오천불을 기부했다.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지역장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개교회에 일임

뉴욕교협 지역장 모임, 지역장 주재 하에 진행

뉴욕교협이 연례행사로 해오던 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지역별 개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지난 3월 17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지역장 모임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주일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합예배가 힘든 상황"이라며 "임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 지역장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개 지역장 중 절반 정도가 참석했으며 대부분 연합예배는 힘들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지역장의 주재 하에 개교회 의견대로 새벽예배를 진행하며 헌금은 교협으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교협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성금 보내는 상황을 보고했다. 이창중 총무는 "지난 3월 4일 한인사회와 같이 시작한 성금모금이 1만 달러 이상 모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된 최근에는 주춤했던 상태"라고 보고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이번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헌금은

안성국 목사 돕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 돕기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창중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말씀 김영식 목사, 합심 통성기도 임병남 목사(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정대영 목사(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하정민 목사(국가와 민족을 위해-미국과 한국), 광고 문정웅 목사, 축도 이재덕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식 목사는 시편 91편 14-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기 바란다"며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같은 일은 인간의 욕심이 앞선 결과"라며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 사랑하기 둘째, 하나님 바로 알기 셋째, 기도하기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KPCA 뉴저지노회 제 62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노회장 정창문 목사...노회기구 개혁

KPCA 뉴저지노회 제 62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저지노회 제 62회 정기노회가 3월 10일 오전 9시30분 뉴저지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렸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정창문 목사(프린스턴연합교회) △목사 부노회장 조인목 목사(주와함께하는교회) △장로 부노회장 손동우 방홍석 목사(새하늘교회) △회록서기 정철 목사(예인교회) △회계 안병구 장로(뉴저지장로교회) △부회계 신동근 장로(뉴저지초대교회) △감사 정석진 목사(하나님의사랑교회), 김원현 장로(뉴저지장로교회).

이날 회무 처리를 통해 하나님의사랑교회(정석진 목사) 이관제 목사고시 추천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사) 강대열 목사 시무사임 청원 △쌍골

교회(한순규 목사) 장로 3인 증선 △프린스턴연합교회(정창문 목사) 장로 1인 증선 청원.

△장로고시 응시는 뉴저지 세계교회, 뉴저지믿음교회, 빛진자들선교교회, 주와함께하는교회 각 1명씩, 뉴저지하베스트교회 2명 △'빛진자들선교교회'(강신군 목사)는 '뉴저지 사명교회'로 교회명칭 변경 △은혜와평강교회(구정모 목사)와 대학생선교회(ESF) 간사 권해택 목사의 월 1천불 6개월 재정지원.

임원회에서는 회원자격 심의의 강화를 제안했으며 임원진 축소, 총무제 시행, 부서를 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회규칙을 개정했다. 또 규칙개정 가결인원은 '재적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등 잠정중단

코로나19 관련 결의사항 발표... 해외찬양선교 취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김재

뉴욕가정상담소에 1000불 기부

뉴욕라이온스 총회(단장 이홍근) 단원들이 3월 17일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를 방문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어려운 한인 가정을 위해 모금한 1000달러를 기부했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관 장로)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임시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3월 10일 오후 6시30분 전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최근에 발생한 우한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찬양 연습으로 모이는 것을 4월 12일 부활절 주일까지 잠정 중단한다.

2. 5월 24일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계획했던 제16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목사 되라"

KAPC뉴욕노회 박휘영, 손오한, 차평화 목사임직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노회가 지난 3월 10일 열린 제86회 정기노회 중 오후 7시30분부터 박휘영(주비전교회), 손오한, 차평화(퀸즈장로교회) 전도사의 목사 임직 예배를 드렸다.

이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유1:20-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노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며 "그 영광을 향한 길을 가려면 첫째, 자신부터 믿음 위에 세우라. 말씀으로 서 있나?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는 영생의 사람이 돼야 한다. 둘째,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흔들리는 자를 견져내고 교인들을 위해 목숨 건 목사가 되라. 설교할 때조차 하나님만 남기고 나를 남기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힘 있게 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받을 목사가 되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이윤석 목사 사회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임병순 목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설교 김성국 목사, 화답찬양 글로리아싱어즈,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권면 허윤준 목사, 축사 이영상 목사, 답사 박휘영 목사, 축도 이규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윤준 목사는 마가복음 3:13-15 말씀을 통해 "부르심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이영상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찾아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함께 하나님나라로 달려가는 기쁨을 누리라"며 축사했다.

목사안수자 중 가장 연장자인 박휘영 목사는 답사를 통해 "소명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로 사명과 종의 길을 걸으며 죽기까지 신실하게 고난을 감수하는 사명자의 자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KAPC뉴욕노회 목사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와 순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 목사안수예배를 마치고 안수자와 지역회 목회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헌신 아닌 희생으로 생명 말씀 전하라"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 목사안수 3명

C&MA한인총회 동부지역회(노회장 이종현 목사)가 주관한 목사안수 예배가 3월 15일 오후 5시 뉴욕 소자선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소자선교회 담임 이현택 전도사와 맨하탄선교회 담임 배현석 전도사, 뉴욕 한늘샘교회 교육담당 박영준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예배는 동부지역회 부회장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박운선 목사, 성경봉독 김태욱 목사, 설교 이종현 목사, 헌금기도 김승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현 목사(뉴욕선교교회 담임)는 "어찌다가"(막15:21-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이 있는 건초더미로 버스를 들이박았던 운전사의 이야기(

뮤지컬 '버스')를 소개하고 "어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는 '어찌다가'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며 "주의 종은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생명의 말씀을 목숨 다해 전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안수식은 백한영 목사의 서약으로 시작해 안수기도, 안수례, 선포, 안수패 증정에 이어 권면, 축사, 축가 김성애 목사, 성의착의, 답사, 축도 이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자들은 "선한 목자는 예수뿐 총횡무진 목양권이 되라"(민병욱 목사), "기본으로 돌아가라"(윤대섭 목사)고 권면했으며 "말씀의 전문가, 기도가 목숨 거는 주님의 운전자"가 되라(임장기 목사) "생명 다해 주님 오실 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울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딤후2:15"(이지용 목사),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양들을 보고 사랑하고 살피며 양육하라"(장동일 목사)고 축사했다.

답사에 나선 박영준 목사는 30년 전 부르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겠다"고 말했다.

배현석 목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회 뉴욕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는 잠정 연기하며 추후 사태를 보면서 연주회 개최시기를 정하기로 한다.

3. 4월 2일 뉴저지 웨스트오렌지 The Life Christian Church에서 열리는 나사렛교단 총회 참석 찬양은 불참하기로 한다.

4. 해외찬양선교(한국, 6월 1-8일) 행사를 취소한다.

5. 위에 공지한 사항과 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뉴욕장로성가단 전체카톡방을 통해 공지한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주일에배 온라인으로 대거 전환

남가주 한인교회 코로나19 대비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남가주 교회들의 모임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재난국가 선포와 개인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50명 이상 집회 및 모임 자체 요청으로 인해 한인교회들 역시 모임을 변경하고 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단

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나성영락교회, 그리고 새생명비전교회 등 한인교회들은 3월말까지 주일에 배 포함 모든 모임을 중단했으며 주일에배는 온라인예배로 전환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으며,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주점들과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양조장들은 즉각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인교회들은 모든 모임을 중단하며 전환된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등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운영을 하게 된다. 다음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남가주 한인교회다.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 △디사이플교회(고현종 목사)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샌디에고한빛교회(이병희 목사)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선한침지교회(송병주 목사) △세리토스선교회(방상용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씨드교회(권혁민 목사)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엘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김종규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충현선교회(민중기 목사)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 △트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박준호 기자>



KPCA서중노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새 노회장 배선용 목사, 부노회장 송병주 목사 KPCA서중노회 제38회 정기노회, 부노회장 최경구 장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 서중노회(노회장 용장영 목사)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전2:1-5)라는 주제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렸다. 용장영 목사 사자로 열린 회무처리 시간에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임원 선출했으며 배선용 목사(파이오니아선교회)가 노회장에 송병주 목사와 최경구 장로(이상 선한침지교회)가 부노회장에 선출됐다. 배선용 목사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서중노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셨다. 서중노회는 자랑하고 싶은 노회이길 바란다. 섬기면서 한 회기동안 선용됐으면 한다. 임원진들 수고와 노력, 격려, 협조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용장영 목사는 "임원진 협조로 노회장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다음 임원에게 주어질 과제가 잘 진행될 수 있기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회무처리 전 용장영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박주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용장영 목사가 설교, 송병주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이용덕 목사가 축도했다. 둘째 날에는 회무처리와 폐회예배를 가졌다. 다음은 제38회 KPCA 서중노회 임원명단이다. △노회장: 배선용 목사(파이오니아선교회) △부노회장: 송병주 목사, 최경구 장로(선한침지교회) △서기: 김성수 목사(무리에타한인교회) △부서기: 오충성 목사(하늘의기쁨교회) △회록서기: 윤종렬 목사(미주영광교회) △부회록서기: 박형준 목사(남가주새생명교회) △회계: 추후선정 △부회계: 조주연 장로(인랜드올브장로교회). <박준호 기자>



임직자들 대구지역에 구제한금 주님세운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15일 오후에 열렸다. 박성규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임직예배에서 카리스찬양단들의 뜨거운 찬양에 이어 손흥수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고 임마누엘성가대(신실한 나의 종)가 찬양을 부르고 김인식 목사(해외한인장로회 경증총회장)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요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교회의 일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데 바로 기둥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점은 겸손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군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일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직자 소개 및 서약 순서와 안수식에서 악수례를 마치고 선포를 했다. 이어 김정자 장로의 축가, 강진웅 목사(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 노회장)의 권면과 축사, 임직패 수여 순서로 진행하면서 임직자 대표로 이종임 장로가 답사를 했다. 임직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청중 앞에 모여 특송을 했으며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교회는 이날 임직자들이 대구 주민들에게 구제한금 4,540달러를 모아 전달할 것이며, 참석자들에게는 떡과 대형 모포 한 쌍씩을 선물로 나눠주었다.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 권오성, 이종민 △안수집사: 김동현, 김두일, 김보오, 김성재, 유은애, 이재현, 장창식, 최순승 △권사: 김자순, 김카니, 김향희, 오유니, 오윤신, 이영애, 정캐디, 홍명순. <정리: 박준호 기자>



PCA한인서남노회가 버뱅크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부노회장, 공천부 통해 다음노회 때 선출기로 PCA한인서남노회 제74회 정기노회

PCA 한인 서남노회(노회장 한성윤 목사) 제 74회 정기노회가 10일 오전 10시 버뱅크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노회는 김지원 부노회장 사임건에 관해 회의 결과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회기 때 부노회장 후보였던 이상현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 의견은 부결이 됐

며 지난 회기 때 부노회장을 다시 부노회장으로 세우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결국 부노회장은 공천부를 통해 후보선정하고 다음노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한정훈 목사를 48회 총회 커미셔너로 파견하는 것을 결정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에서 임현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통일보다 시급한 복음전도” LA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 강사 임현수 목사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춘계부흥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열렸다. 조이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이희문 목사 사화로 시작된 14일 둘째날 저녁집회는 합심기도 후 임현수 목사가 '통일보다 시급한 것'(행1:6-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현수 목사는 "우리민족이 염원하는 것은 통일이지만 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며 "매일 지구상에는 20만명 생을 마감할 것인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거 자체가 전도가 돼야 한다. 전도가 안되는 건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다. 전도 안 되는 4가지는 실천부족, 훈련부족, 양

육부족, 기도부족"이라 말했다. 그는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사도들을 본받는 자다. 둘째,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셋째, 예수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섯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사다. 여섯째, 영적 건강을 위해서다. 일곱째, 사회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사회가 변화된다. 여덟째, 내 이웃 사랑하는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기 전에 전해야 한다. 아홉째, 지구종말이 가까웠다. 적그리스도가 판을 친다. 도덕적 부패, 낙태, 저출산 등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열 번째, 하나님이 한국 사람과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용하실 때 사용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흥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했으며 앞뒤 간격 6피트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KAPC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연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성일 목사)는 17일 열기로 했던 제34회 정기노회를 다음과 같이 연기한다. 노회 임원회 임사부, 헌의부, 공천부는 오는 30일(월) 오후 5시 열방선교회(담임 양인수 목사)에서 열고 정기노회는 31일(화) 오전 10시 남가주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733-3611

크리스찬문인협회 신인상 작품모집
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류민호)는 제34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작품모집을 실시한다. 모집부문은 △시: 5편 이상(레터 용지 출력)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 △소설: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장편-1편 △동화: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 △동시: 5편 이상 △동요: 5편 이상 △생활수기: 1편 200자 원고지 50매. 작품소재는 자유이며 미 발표작이어야 한다(표절금지). 응모마감은 5월 31일까지(제출처: 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이며 발표는 6월 30일 신문에 공고하며 입상자에게는 시상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한다. ▲문의: (213)249-0771

한인가정상담소 임시 휴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임시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다중이용시설인 상담소를 17일부터 휴관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재택근무 시에도 직원들은 모든 사무실 전화를 응대해 한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재 개관일을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213)389-6755

장학생 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장학위원회가 제3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대상은 주소지가 남가주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으로 △General △PK & MK △신학생 등에게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오는 4월 26일(주일)이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중순 예정이다. ▲문의: joyfulccc.org

달라스연합감리교회 3월말까지 온라인예배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달라스 카운티 보건당국과 북텍사스 연회 감독 요청으로 20일(금) 금요일기도회와 22일(주일)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한다. ▲문의: (972)258-0991

빛내리교회 온라인예배
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는 달라스 카운티 보건당국 요청으로 교회내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예배(주일, 수, 목, 금, 토요일, 교육부서)는 온라인으로 대신한다. ▲문의: (972)238-1127

온라인예배 어려운 작은교회 방역
Son Ministry/GMAN(대표 김정환 선교사)은 온라인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준비 중에 있다. 대상은 20교회이며 방역한 교회는 방역이 필요한 교회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릴레이 방역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방역 작업은 교회 출입문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손이 많이 닿는 곳과 예배실이며 비용은 소독제 재료비(약 70달러)를 현금으로 하면 된다. 방역을 원하는 교회는 전화하면 된다. ▲문의: (714)350-6957



GMAN대학, 사랑의 뜰 오픈강의에서 김용석 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사랑의 뜰... 선교지에서 많은 도움 GMAN대학 오픈강의, 강사 김용석 원장

GMAN대학은 사랑의 뜰 오픈강의를 14일 오후 2시30분에 가졌다. 이날 강의는 김용석 원장(김용석침플턴전문병원)이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김용석 원장은 "뜸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뜰을 배워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악하고 병원에 없는 곳에서 뜰을 선교사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뜸에 속을 사용하는 것은 속은 아무리 떠도 염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뜸은 건강을 지키고 질병예방도 되지만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 84% 영상예배...작은 교회는?

장비, 운용기술 없는 개척교회 등은 엄두 못내

한국 교회 중 6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오프라인예배를 병행한 교회까지 합하면 84%가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CSI Bridge(CSI·대표 이길주 목사)는 전국 276개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5-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CSI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배를 병행한 교회 22%까지 합하면 응답한 교회 중 84%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서 “온전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는 16%에 그쳤다”고 말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헌금은 감소했다. CSI는 “온라인 예배로 평소보다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교회가 93%가 됐다”면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월세 등 경성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작은 교회들은 기술과 장비, 인력이 부족해 온라인예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응답한 교회 중 41%가 온라인 예배의 어려움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어색함”을 꼽았다. 이외에도 ‘기술적 미숙함’(31%) ‘부정적 인식’(15%)이 장애물로 드러났다.

이길주 목사는 12일 “한국교회가 헌금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꺼린다는 일부의 시선은 사실과 달랐다”면서 “최대 84%에 달하는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주일예배 관련 4차 대응지침 논의

예장통합, 코로나 확산세 따라 자율성 부여 검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주일예배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도 지역 노회와 교회 규모별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4차 대응지침을 마련 중이다.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연 예장통합은 11일 4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총회 임원회의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3일로 연기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달한 지역이나 방역이 용이한 작은 교회에는 자

율성을 부여하는 뜻을 담아 4차 대응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당회 혹은 제직회의 결의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3차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국노회장협의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주일예배와 코로나19 피해구조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노회장협의회장 권위영 목사는 “(주일예배 방

식) 각 노회장들이 정하고 교회는 당회장이 당회 장로들과 정할 수 있게 언급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철저히 지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인 홍성연 장로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신천지와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교회가 더 철저히 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발언에 대해 교회의 자발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방역 대책을 잘 준수하는 교회에 거부감을 준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극복”

교수선교연합회 ‘텐-텐(Ten-Ten) 기도’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교수선교연합회)는 기독교 교수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매일 밤 10시, 10분간 기도하는 ‘텐-텐(Ten-Ten) 기도’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수선교연합회는 캠퍼스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1986년 설립된 기독교 교수의 모임으로 1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텐-텐 기도를 위해 교수선교연합회는 기도제목을 공유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교회가 주일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이번 사태로 1000만 성도의 믿음이 더해져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신도들이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이 정통 교회에 침투해 감염을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학생, 교직원을 위한 기도도 부탁했다. 16일부터 상당수 대학이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

교수선교연합회장인 이선복(동서대) 교수는 “온 국민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가 지도자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하며 국민을 가슴에 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사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도 신천지는 최대 희생양”이라며 “인권탄압을 해도 욕을 안 먹으니 신천지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신천지의 이 같은 주장은 대구시와 경찰이 공동으로 신천지 대구집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후에 나온 것이다. 천지일보의 자신들을 ‘피해자’로 지칭하고 “여태껏 피해자를 해자로 몰아붙인 이 정권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홍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16일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정체를 숨기며 활동했던 신천지 신도 때문”이라며 “종교사기 집단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놓고 정작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뻔뻔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고 밝혔다.

그는 “교회 측의 방역 협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영상예배도 못하는 소규모 교회 등 일부는 관리가 안 된다. 예방적 차원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은 걱정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안 하는 곳”이라며 “거기서 터지면 추적 관리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중 안산 품의교회 목사는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예배 강제 금지의 선례가 없었다”며 “한국교회 성도 중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한교총, “교회의 고뇌 헤아려 달라”

7일 국회통과 ‘종교집회 자체축구 결의안’ 반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12일 “국회가 종교집회 자체 축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교회에 예배 자체를 축구한 건 교회의 고뇌는 생각하지 않는 가볍고 안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분열을 멈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설 것도 독려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긴급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교총의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회장단이 참석했다.

한교총 상임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며 정부 등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국교회도 초유의 사건을 맞이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일 국회가 통과시킨 ‘종교 집회 자체 축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성과 교회의 구조를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면서 “기독교계는 수직 구조의 의사결정체가 아니기에 개교회에 지침을 제시하는 방법 외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에게 “전 기독교계가 아낌없이 몰자 지원 등을 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데 공권력 동원 등의 얘기가 나오니 속상할 따름”이라며 “정부에서 교회와 신천지를 같은 집단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교계가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리에 참석한 각 교단 상임회장들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국교회의 자발적 참여를 존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보여주시던 방역 당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은 잘 알고 있다.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 감압적으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12일 아침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지자체장들에게 이 점 유의해달라는 협조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가 보인 행정 명령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교계가 앞장서 본을 보여주심에 국민도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예배와 종교 활동이 복구되고 다시 활성화돼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에 함께 나서자”며 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교총은 회의 후 한국교회에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으로 삼고 더욱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자”면서 “결순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회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고 독려하는 내용의 목회 서신을 띄웠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교회 주변의 취약한 이들을 찾아 사랑과 용기를 줄 것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에 충실할 것도 요청했다.

한교총은 오는 22일 오후 5시 주요 교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탈출구 안 보여 하늘만 보고 있어요”

기독교문화계 코로나19 비상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기독교 문화계도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나마 예정돼 있던 공연과 집회, 문화행사 등이 취소돼 문화 사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탈출구가 안 보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대출받은 것을 아직도 갚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출을 더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20년간 공연계에 종사한 A극단 대표 B씨는 9일 국민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한두 달 더 지속하면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A극단의 소속 배우 중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배우뿐 아니라 극단을

운영하는 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연을 하지 않아도 월세는 계속 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록 뮤지컬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표현한 뮤지컬 ‘저지스’는 오는 5월까지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공연을 중단했다. 원패스엔터테인먼트 이사장 박원영 목사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만 3억원 가량이 된다.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나중에 공연이 재개되면 볼 수 있는 티켓을 드린다”고 전했다.

19년차 찬양사역자인 C목사는 “그동안 조금씩 저축한 게 있어 그걸로 버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서너 달 더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힘들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

대구시가 12일 0시부터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1천400여명을 추가로 자가 격리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번 조치로 격리에서 벗어난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는 5,647명이 됐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모임, 집회 등을 일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신천지

는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시 당국의 관리 인력만으론 5000명 넘는 격리 해제 신도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신천지 창립기념일을 맞아 은밀하게 소규모 모임을 가진다면 그 자리가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

다.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와 친밀해졌다. C목사는 “가족관계가 더 끈끈해졌고 회개 기도를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곡을 쓰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미니스트리를 운영하는 D대표도 “지난달 중하순부터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며 “미니스트리 멤버들이 개인 레슨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D대표는 “문화 사역자들이 영상 제작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다만 신학적으로 영상 예배에 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극단을 운영하는 E대표도 공연을 중단하고 다음 작품 준비에 매진한다고 했다. E대표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매일 5시간씩 신체 동작, 노래, 연기 등 파트별로 훈련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다”며 “임대료가 부담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 ‘예배전면금지’ 사실상 철회

경기지역 목회자들과 긴급간담회...조건부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사실상 철회됐다. 대신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회장단 및 도내 주요 교회 목회자 10여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다.

이 지사는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만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다.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다”면서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교회 측의 방역 협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영상예배도 못하는 소규모 교회 등 일부는 관리가 안 된다. 예방적 차원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 가능성을 미리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곳은 걱정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안 하는 곳”이라며 “거기서 터지면 추적 관리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중 안산 품의교회 목사는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예배 강제 금지의 선례가 없었다”며 “한국교회 성도 중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신천지 5,647명 격리 해제...정통교회 침투한 위장신도는 어떡하나

관련 시설의 폐쇄 기한도 2주 연장했지만 대구 지역 기독교계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신천지 측이 그동안 신분, 시설 등을 은폐했다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대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 데다 주요 기념행사인 창립기념일(3월14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주일예배를 재개했을 때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정통교회 내 신천지 위장신도가 일일될 수 있는 혼란이 방역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현기 대구동일교회 목사

본부가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1900여 곳 교회와 부속기관 주소 목록 외에 154곳의 시설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천지가 정부에 공식 제출한 자료에 포함 차려 누락이 발견된 것이다. 오 목사는 “교회 부설기관으로 이단연구소를 3년여 운영해 오면서 신천지에 대한 연구, 탈퇴자 신앙회복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진행해왔다”며 “신천지의 특성 상 누락된 시설에서 언제 어떤 모임이 이뤄질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타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교회에서의 예배 재개된다면

위장신도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고 ‘추수꾼’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신천지 신도 집단 거주 등 그 동안 은폐했던 시설이 드러날 때마다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신도들을 관리하면서 활동 지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대구 지역 교회들은 전국에서 들어오는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다. 장영일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대구 지역 내 교회 대부분이 15일까지 영상예배를 드리고 23일 정상예배로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며 “예배 시 본 교회 성도 외엔 입장시키지 않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교육을 진행하는 정도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의 창 (14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하늘의 별처럼 살아야 할 선교사

온 세계인이 패닉(panic) 상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가 지구촌 곳곳을 쓰나미처럼 삼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영화나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상상들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큰일이다. 민심은 동요하고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고 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인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21:10-11). 아무튼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도 너무 어둡고 혼미하다. 이런 때에 본도 아버 집을 떠나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외롭고 고통스럽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단 말인가?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영롱하게 빛난다. 부름 받은 선교사들은 세상이 어둡을수록 하늘의 별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은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되 참 빛을 발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선교사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소명이 불확실하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고난 시에는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소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거침없이 선지적 사명을 불었다. 소명(Calling)이란 무엇인가? 이는 왕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에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변증가이자 작가인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전체, 우리의 소유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사된다. 이때문에 소명이야말로 인간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전환이요 가장 심오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 곧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Why)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인간은 가슴 깊숙한 곳에는 자

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존재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명 없이 사명 없고, 사명 없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 불타는 열정(熱情)

선교사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없다. 메마른 관념적 신학으로는 영혼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일 수 없다.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을 초개같이 던진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열정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불타는 열정이란 자기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다. 그것은 “미쳐야 미친다”라는 세속 언어처럼 올인(All In) 하는 것이다. 열정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논어에 있다(子曰知之者 不如好

를 열정으로 인생을 불태웠는데 소위 하늘의 대업인 선교사역을 적당히 할 수 있으랴! 열정이 없는 사역은 야자수 나무 밑에 스치는 바람처럼 그저 무용한 내다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3. 온유한 심성(心性)

선교사는 온유한 심성이어야 한다. 온유하지 않고는 어떻게 문화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온유(Meekness)의 원어적 의미는 원래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상태에서 다시 전의(戰義)되었다. 즉, 자기를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이웃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는 마치 꾸겨지지 않는 비단 천과 같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용서하고 이전처럼 편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가 말년에 유언 격으로 쓴 디모데 전, 후서를 읽어보면 성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어떻게 바울이 고전13장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었는가? 그러므로 선교사는 늘 온유한 심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아의 존재적 변화 없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없다.

4. 단순한 생활(生活)

선교사는 그 생활이 단순해야 한다. 생각과 삶의 자세가 단순할 때 기동성이 있다.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는 단순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여행에 파송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만 한 사람이라” (막6:8-9). 이 말씀은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교사들이 수시로 점검해보아야 할 자세이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 따라서 조금만 방심하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안은 어느새 잡동사니가 쌓이게 된다. 선교사는 모름지기 그 사고체재와 삶이 단순해야 한다. 선을 가장한 사업가적인 선교 양태는 절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꺾어 빠져 소유물의 포로가 되기 쉽다.

맺음말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요하지 않다. 인간세계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되고 물질문화가 풍요롭다 해도 죄와 사망의 밭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첫 일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20:19)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할고? 우리는 과학자요 의학자들이 속히 대응할 백신을 개발하도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의 종들이 나서서 못 심령들을 다독이며 살피야 한다. 특히 이방 땅에서 고독하게 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교사 자신이 먼저 문체의 한복판에서 서서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로 소명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타는 열정으로 양떼를 품으며 누구에게나 온유한 성품으로 대해야 한다.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까울지라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단호히 청산할 필요가 있다. 별과 같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jrson007@hanmail.net

1. 확실한 소명(召命)

밤이 깊을수록 별 빛은 영롱하게 빛난다.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하며 민심이 흉흉한 때이다.
선교사는 어떤 역경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한다.

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이를 의역하면 도(道)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미치는 것만 못하리라.”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은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는 새벽을 깨우면서 늘 새로움을 추구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비록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다. 사람이 돈 버는 일에도 이

온유한 심성이란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심자가 아래서 자기가 죽고 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된 성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는 성품이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예수께서 “우뢰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었다. 하나 그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떠한가? 그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계셨다(無所有)를 주장한 법정(法頂) 스님이다. 2010년 그분이 입적(入寂)하기 직전 유언을 남겼다. “장례식을 하지 마라. 수도도 짜지 마라. 평소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관(棺)도 짜지 마라. 강원도 오두막의 대나무 해라. 사리도 찾지 마라. 남은 재는 오두막 뜰의 꽃밭에 뿌려라.” 법정 스님의 이 정신과 삶의 방식은 살지고 기쁜 현대인들에게 지금도 많은 반향을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읽고 장려상 정희수(인랜드교회)



내가 내 자신에게 지쳐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발산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발산할 줄도 몰라 가슴앓이로 속을 썩이고 있을 바로 이 시점에, 나는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책을 만났다. 나는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책 제목을 읽고서 별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울분을 터뜨리고 싶어졌다.

1부의 “내 믿음 돌보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면에 던져왔던 질문이 김유비 목사님도 하는 질문이었고 남들도 하는 질문이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 바라보기 참 힘들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정말 가시밭길이구나.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때가 정말 많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왔다. 그런데 그 답은 가까운데 있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나갔다.

또한 나는 “내 믿음 돌보기”를 통해 내 믿음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내 신앙이 꽤 괜찮은 줄 알았다. 늦잠을 자지 않은 이상 매일 새벽예배를 가곤 한다. 새벽예배도 참석하고 나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나

만의 착각일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이세껏 잘 지켜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자꾸만 지쳐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다. 말씀 중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살지 않은 교인들을 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틀이 바뀐다고 판단되면 꼬리 놀린 뱀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본성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표출하며 공격성을 드러낸다.

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위로받고 회복되기도는 상처받아 괴롭고 서글플 때가 더 많다.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잔뜩 무엇인가로 포장하고는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사하고 비열할 때가 적지 않다.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무거워지는 건 ‘신앙적 권태기’일까.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내 믿음 돌보기”를 보면, 김유비 목사님도 나처럼 힘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온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책 속에는 비속한 생각, 비속한 감정을 느끼며 신앙고민에 잠긴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또 나온다. 김유비 목사님이 내담자들에게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같이 힐링되는 것 같고, 정말 가슴 위로 속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왜일까.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도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설 때다.

2부의 “내 상처 돌보기”는 내가 내 상처를 돌아보며 가장 큰 위로를 받게 해준 책이었다. 특히 147페이지의 “돌봄은 잠깐이고, 고통은 계속이에요”라는 표현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꿰어보고 있는 듯 한 인상을 받았다. 내가 이 순간 상담

...그런데 그 답은 가까운데 있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다. 이렇게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나갔다...

받고 있는 기본이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다. 내게도 상처가 있다. 나는 제왕절개를 세 번이나 했다. 나는 봉합부위를 이따금 때때로 보다가 아직도 다 힐링되지 않은 느낌을 받기 때문일까. 몸의 상처도 문지르고 또 문지르는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그동안 나는 마음의 상처를 별로 아무만져주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상처는 굼이있었다.

그 상처가 나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굼은 상처를 스스로 터뜨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일 줄 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타인으로부터 왔을 때는 어떤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지 쉽사리 답을 찾지

어렵다. “내 상처 돌보기”에서처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잠깐이고 그 뒤를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자아파괴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사탄의 장난이자 농락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손아귀 위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왜일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 싶어 타인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편이다. 예수님께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타인을 이웃으로 대해주면 어떤 때 돌아오는 것은 ‘감질’이다. 내가 잘해준 그 타인은 자신이 잘나서, 고상하고 고결한 무엇인가가 된 줄 착각하고 감질의 날개를 마음껏 휘두르며 나를 오히려 이용하려 든다. 그런 관계는 물론 오래가지 않아 종지부를

찍는다. 또한 나는 내 주변에서 거지 습성에 젖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마주하고는 실망하고 상처 입게 된다. 이들 무리는 ‘고상함’이나 ‘지적추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자신의 이익, 이권만 추구하려한다. 고통 속에서 못 먹고 할뻔한 자들이 전 세계의 그늘진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배만 불리려는 돼지들. 그들은 자신들이 흙탕물 속에서 뒹굴면서 그것이 흙탕물인지 모른다.

대충 언어먹으면 잘 언어먹지 못해 “돼지꿀꿀”,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은 것을 타령하며 “돼지꿀꿀”거린다. 주변의 돼지들은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하고 더 자랑의 자랑을 하고 싶어 또 “꿀꿀”거린다. 그러면서

치부가 드러나거나 수틀리면 꿈틀대면서 인상을 썩인다. 돼지들의 불평불만 소리는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들은 복에 겨워 요강에 똥까지 싸는 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 똥오줌을 나에게 팍팍 튀기며 장난 반진담 반을 쳐댄다.

돼지처럼 “꿀꿀”대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싶어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은 서글퍼진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돼지가 되어 같이 배불리며 함께 즐기며 놀기를 바란다. 심지어 교회는 어떤가. 전도에 목말라, 영혼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지경이다. 답답한 내 가슴은 굼다 못해 썩어 문드러지는데 하소연할 데는 어디에도 없다.

최근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녹다운시킨 사건이 어떤 기독교모임 식사자리에서 벌어졌

속은 문둥이처럼 썩어문드러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누구한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억눌리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 새벽기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 본다. 기도하면 마음이 풀리는가 싶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의 나’가 울컥울컥하며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타이밍에 만난 “내 상처 돌보기” 책은 대화방식을 통하여 내가 내 안의 상처를 돌보는 방식을 알려주었다. 내가 내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천천히 차근차근 시도하게끔 도와주었다. 이 책을 통하여 내 마음과 똑같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친구와 소통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3부의 “내 관계 돌보기”를 통하여,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누구를 돌본다는 말인가.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무기력할 때가 요즘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나의 무기력한 감정에 굴복한 채 일찍 눈을 떠서 새벽기도를 갈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알람을 끄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 “내 관계 돌보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꼬, 하면서 무기력한 감정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 일어나 새벽예배에 나섰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다시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14편으로 계속)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5. 가정의 기원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론과 절대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가정의 기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화 같은 신화적, 전설적 설화만 있을 뿐입니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 즉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황당무계한 학설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날에 자기

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의 결혼으로 한 몸이 되게 하고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고 말씀하시며 인류 최초로 가정에 주신 5가지 축복(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

치)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본질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 산물, 신적 제도 하나님 뜻에 따라 직접 만드신 첫 축복 기관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창 2:24),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정하신 최초의 결혼제도이며,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

인간 창조 사역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니(창 2:7), 그가 곧 인류의 조상, 남자의 선조인 아담이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작정하시고(창2:18), 흠이 없는 아담의 갈비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다 곧 여자의 선조인 하와입니다(창2:21-23). 이들 곧 남자와 여자가 연합

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고 하였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일부일처제로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는 이중성이 개체성이 된다는 뜻으로 죽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1+1=1)"라는 의도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영, 혼, 육적으로 서로 굳게 연합하고(고전 7:3-4),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에 두고, 서로의 지혜를 합하여 행한 가정을 이끌어 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인적,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며, 창조의 산물이며, 신적 제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만드신 최초의 축복의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가정의 기원입니다. 가정의 기원을 바로 아는 것이 가정선교의 첫 걸음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종교적 의무 아닌 "은혜" 로 재난상황에서 승리!

(1면에서 계속)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 '계획과 준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지식과 자원을 총 동원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정말 좋은 해결책과 계획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현실적인 해결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단지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행동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으로써 불안을 줄이고 통제감을 얻으려는 본능은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낳는 주원인이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한다. 21세기 들어 점점 빈번해지는 사람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전염병의 증상은 야생동물에서 출현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들에게 감염돼 전 세계로 확산, 사회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서구 주도로 전 세계가 추진해온 '지구화'와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는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에 따라 지구화가 인간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풍요

를 가져다줄 것이라고만 기대했지, 그 지구화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바이러스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흑사병에 대한 성찰이 오늘날 이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직면한 중국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What Martin Luther Teaches Us About Coronavirus: Is it faithful to flee an epidemic? German reformer's reflection on the plague can guide Christians in China and everywhere the Wuhan virus has spread). 1527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와 주변 도시들에 다시 페스트가 찾아왔다. 흑사병이라 불린 페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다. 전염병에 걸린 평범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개혁자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루터의 조언은 전염성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실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선, 루터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

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찬을 베풀어 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시립병원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루터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정하지도 않는다. 병상과 인력이 부족한 우한을 보면, 루터의 이 권고는 특히 더 적절하다. 인구가 1,100만에 이르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도시인 우한은 폭증하는 감염자들을 신속하게 진료하기 위해 2개의 병원을 며칠 만에 지었다. 의료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도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라고 권고한다(마25:41-46).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그의 편지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아야 한다고 확신한다(엡5:29; 고전12:21-2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검역과 진찰 같은 공공 의료조치를 옹호한다. 요컨대,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이 땅의 악들도 베푸셨다. 그래도 전염병을 피하고 싶어 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루터는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을 돌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도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루터는 또한 구원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선행과는 별개임을 독자들에게 강조한다. 그는 결국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전염병으로부터 피신할 것인지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 기쁨을 통해 믿음을 있는 결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의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루터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대학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

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겪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이들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천국의 약속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우한의 어느 익명의 목사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서 재난과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과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우한의 목사 둘 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음과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결국 세계는 현재 재난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응급의학을 전공한 크리스천, 웬디 게이드(Wendy J. Gade)는 "교회를 위한 세계적 전염병 독감계획: 위기의 시기에 공동체를 섬기기(Pandemic Flu Plan for the Church: Ministering to the Community in a Time of Crisis)"에서, 교회가 재난대처에 앞장설 뿐 아니라 나아가 재난대처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교회가 교회 자체와 교회의 이웃 사회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위기관리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맞아, 교회가 당황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난을 제대로 대처하려고

보니, 여기저기 구멍투성이다. 즉 알아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준비할 것도 많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회가 소극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재난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편집부) 독후감 (13면에서 계속)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그 동안 미안했다, 회수야!" 라고 말해주었다. 4부의 "내 감정 돌보기"에서 나는 자아성찰과 더불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다. 물론 밤 먹듯 새벽예배에 나가 회개를 하곤 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고, 내 감정을 돌보는 기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 나는 내 감정을 어루만지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이를 통하여 '내 안의 나'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나의 포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수야, 그동안 잘 참아줘서 고마워. 난 지금까지 잘해왔어. 정회수, 화이팅"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 얼굴에 웃음이 넘쳐났다. 내가 행복해지니 남편도 아이들도 행복해졌다. 가정에 웃음이 넘치니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탁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벤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엘파소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노스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주 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photos of pastors, and service times.

영어로 보는 성경 (5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Titus 3:3-5

3) At one time we too wer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and en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We lived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4) But when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our Savior appeared,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NIV 2011)

WORD & IDIOM

* at one time: 전에 언제인가 * foolish: 미련한, 어리석은 * disobedient: 순종하지 않는, 위반하는 *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 enslave: 노예로 삼다 * passions: 정욕, 정열, 열정 * pleasures: 기쁨, 즐거움, 향락 * malice: 악 * envy: 질투, 시기 * hate: 미워하다, 증오하다 * kindness: 친절 * righteous: 의로운, 공정한 * mercy: 자비, 연민

GRAMMAR

3) At one time we too wer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and en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노예가 된 우리도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향락의 노예였다.

* <we were deceived and enslaved>는 (be+과거분사)의 수동태 문장이다. 따라서 주어인 <we>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내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하여 동작을 받는다. 이 경우 <deceived>나 <enslaved>를 형용사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해석은 <속은, 노예가 된>과 같이 수동형으로 해야 한다. *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를 직역하면 <정욕(들)과 향락(들)에 속한 모든 종류들에 의하여>이다. 그러나 우리말의 경우 이처럼 복수형을 쓰지는 않는다. 또한 <all kinds of ~>를 <모든 종류의, 많은> 등의 형용사로 보고 <passions and pleasures>를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We lived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우리는 악과 시기 속에서 살았다, 미움을 받고 서로를 미워하였다 => 우리는 악과 시기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미움을 받았으며 서로를 미워하였다.

*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는 분사구문이다. <We were hated and (we were) hating one another>를 줄인 것이다. ()을 <그리고>로 해석한다.

4) But when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our Savior appeared, 그러나 (주어가 ~ 할) 때 친절과 사랑(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타났 =>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of ~) 때문이 아니라 의로운 일 우리가 했었다, (그러나) 그의 자비 때문이다. =>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행했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 <not because of A but because B>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5절 말씀에 적용하여 해석하라. * <righteous things () we had done>는 과거완료형 문장으로 ()안에 선행사 <righteous things>를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뒤의 문장은 선행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기능을 가지므로 해석도 그에 따른다.

STUDY & THOUGH

■ 위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한 바울의 교훈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게 악한 자들이었음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바울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이처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여 이들과의 다름을 막고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 God saved us from our sins according to God's grace and lov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말씀 들을 줄 아는 자(막14:23-25)찬235장

그 나라 백성에게 말씀 듣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로 가르치신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왕의 말씀을 모든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시편기자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시19:14). 둘째, 말씀의 깨달음이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해석된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일에

바쁜 사람이 복됩니다. 셋째, 자기 지각을 사용해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절대 순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람은 교훈을 흔잡게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며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의 태도를 말씀화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도 이 약속된 길을 걸을 때 기이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 하나님 나라의 능력(막14:26-29)찬340장

본 비유에서 주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의 능력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왕이 일하시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씨 뿌리는 것은 그 나라의 말씀이 무한한 능력 가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작아보여도 전능자의 시작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창조 때도 조용히 운행하시던 그 영광의 성령(창1:2)과 가라사대(창1:3)라는 말씀 한마디가 위대한 역사를

이뤘듯이 그 나라의 왕은 지금도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둘째, 그 씨앗은 자라는 과정을 요구하듯 하나님나라는 일반 은총을 무대로 힘 있게 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수 겨자씨 비유(막4:30-32)찬347장

앞의 비유는 그 나라의 능력의 과정을 보여 주지만 본문은 그 나라의 초자연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 나라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본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작은 씨앗이 밭에 심겨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은밀하고 겸손하게 시작하셨습니다(31). 겸손의 능력입니다. 둘째, 그것은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합니다(32). 작은 씨가 큰 나무로까지 성장하

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전능자의 손이 불드심으로 그 무엇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된 것입니다. 셋째, 마침내 그것은 새들이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32). 복음을 믿는 신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일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벧4:13).

목 비유의 해석방법(막4:33-34)찬495장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 하나님나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많은 비유 곧, 그림계시를 다루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진리를 담는 좋은 그릇입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심은 깨달음을 더 풍성하고 생동감 있고 확실하게 해 줍니다. 둘째, 그 비유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비

유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묵상하고 그 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셋째, 또 그 비유는 구속사를 중심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구원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분명히 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유가 이단 가르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 의식주의는 모두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막4:35-41)찬40장

그 왕은 자연만물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첫째,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때에 성부의 곁에서 순종함으로 친히 말씀이 되어 만물을 신하게 만드셨습니다(잠8:27-30). 그가 친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골1:16). 둘째, 동시에 그는 모든 피조물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광풍과 물결을 그의 명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만물의 모

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골1:17). 바람의 움직임도 그의 허락이 없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의 믿음성장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는 그 표적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신분과 그의 말씀의 권능과 함께 그들의 약한 믿음을 연단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토 영계를 다스리시는 그 왕(막5:1-20)찬219장

모든 비밀이 알려지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귀신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소위 영계를 통제하시는 그 왕만이 자세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상세계가 아니고 실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예텐동산에 나타난 시련하는

자를 의식해야 합니다. 둘째, 마귀가 굴복하는 모습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증거합니다(8-13).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세상에 역사 하는 마귀를 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자는 그 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막16:17-18). 나오라는 명령 한마디에 즉각 굴복 하듯 교회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결의문

“본 교단 제104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를 설립하자는 헌의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미주중부노회설립 총회공지사항

개혁 보수 정통신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미주 지역에서 목회 하시는 본 교단 출신 목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신신대원 출신자로 미주중부노회를 설립하기 위해 실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본 교단에 가입을 원하시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는 아래 실무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자는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노회에서 강도사인허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연락처 : 실무위원 표세홍 목사 213-248-1143 주소 : 1616 S St Andrews Pl #3 Los Angeles., CA 90019

주후 2020년 2월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목사 | 서 기 정창수 목사

문서번호 본부 제104-518호
수신 표세홍 목사님
제목 교단 가입신청서 제출안내 요청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본 교단 미주중부노회 설립을 위한 실사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별첨과 같이 본 교단에 가입을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 공문 1부,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서 기 정창수

문서번호 본부 제104-517호
수신 미주중부지역 교회 담임목사
제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가입신청서 제출안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단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신대원 출신자로 미주중부노회를 설립하자는 헌의에 대하여, 실사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가입을 원하는 교회 및 교역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본 교단 가입을 원하는 교회와 목회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근거 : 제104회 총회 결의사항
총신신대원 출신자로 미주중부노회 신설 헌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헌법정치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함

2.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소정양식) ② 구비서류 : 교회등록신청서(소정양식), 교세통계표(소정양식) 공동의회 회의록사본(원본대조필), 교인서명날인 명부 사본(원본대조필) 교회 주부 2부(2주분), 교역자신상카드(소정양식)강도사인허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학부과정 성적·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과정 성적 졸업증명서

3. 제출방법 :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

4. 제출기한 : 2020년 3월 30일까지

5. 문의처 : 총회기획행정국 담당자(Email_lim4893@hanmail.net)

〈별첨〉 가입신청서 및 소정양식 각 1부,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
서 기 정창수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실무위원 표세홍 목사의 인사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미주 지역에서 목양을 하고 계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께서는 상위와 같이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표세홍 목사

미주중부노회와 미주서부노회를 복구할 당시 목사님들과 시무하시는 교회의 형편상 기회를 갖지 못하신 동문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로 하여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를 미주중부노회 신설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문과 경건에 전념하는 목회자, 경건한 교회를 지향하는 미주중부노회를 신설함에 있어서 저에게 제104회 총회임원회로부터 실무위원으로 도와주실 것과 이를 공지해 달라는 공문을 상기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뢰성과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96회 총회에 “미주지역 노회 복구 헌의안”을 제출 한 바 있으며, 제104회 총회 남평양노회 목사총대(12년차)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제28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제56회 목사장로기도회에서 총회장상 밀알 상을 수상한 박광재 목사에게 협력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광재 목사는 이번 기회를 총회를 위한 마지막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알고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후 2020년 02월27일(목) LA에 도착하였습니다. 박광재 목사님은 향후 3개월 동안 미주지역에 머물며 신설 미주중부노회 조직을 위하여 저와 함께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신 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설 미주중부노회 가입을 원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상기 총회의 결의문과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아래와 같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본국 총회에 관련 서류 중 가입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임원회의 신속한 확인과 행정 절차상 필요)

*〈2차로〉 관련서류 일체를 실무위원인 표세홍 목사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노회 조직을 위한 신속한 행정 절차상 필요)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 정치15장13조)에 의거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들도 금번에 본 교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과 교회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후 2020년 2월 27일(목)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중부노회 실무위원 표세홍 목사
주 소: 1616 S., St Andrews Place #3., Los Angeles., CA90019
연락처: 213-248-1143, Email: pyoshed@gmail.com
www.mijoojoongbu.org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도우미 박광재 목사 인사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나간 40년 동안 미국을 70여 차례 왕래하면서 거룩한 성경의 제비뽑기 사역 및 선거제도 적용세미나와 포럼 등을 인도해 왔습니다. 까닭에 미주지역 교역자들과 폭 넓은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분들 중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 동문목사님들께서 친정과 같은 총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박광재 목사

총신동문들의 한결같은 요청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본국 총회에 가입하여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간곡한 요청을 받은 저는 9년 전 제96회 총회에 제가 소속한 남평양노회를 통하여 “미주지역 노회복구 헌의안”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 지나서 마침내 3년 전 미주서부노회와 미주중부노회를 복구하는 그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동문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의 형편상 미주지역 노회복구에 참여하지 못한 동문목사님들이 다수 계시고 그분들께서 미주지역에 또 하나의 노회를 신설하여 본국 총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104회 총회에 크리스찬포커스 대표 송삼용 목사의 중재로 전복노회 노회장 윤희원목사, 서전주노회 노회장 서현수목사, 경기중부노회 노회장 최광영목사 등 3개 노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헌의안을 올린 결과 “총회임원회 실사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하다”라는 결의가 채택되어 그 두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헌의 안이 채택된 후 저는 총회임원회에 미주중부노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현지 목회자로 “한인 이민교회 100주년 사무국장”, “남가주한인목사협의회 회장”과 “LA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재미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표세홍 목사님을 협력하여 도우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회임원회에서는 행정상 현지 미주지역의 동창회 사정에 밝은 표세홍 목사로서 하여금 실무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것과 저에게는 도우미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실무위원으로 임명받은 표세홍 목사로부터 미주중부노회를 신설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저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번 기회가 저의 목회사역 40년을 마감하면서 총회를 위한 마지막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알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중부노회를 신설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과 거룩한 성총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과 제 자신이 지나간 40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남평양노회 목사총대 박광재 목사 배상

